WORLD ECONOMY UPDATE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 ISSN 1976-0515 | Vol.8 | No.45 | 2008년 12월 15일

2009년 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무역투자정책실, 세계지역연구센터

1. 세계무역 전망
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3. 한국의 투자 전망
4. 한국의 무역수지 전망

주 요 내 용

▶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2009년 주요 선진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호주의 조짐과 함께 2009년 세계무역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지역별로도 선진경제권 무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자원부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개발도상국 경제권 무역도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경제권의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대체적으로 감소할 전망임.

▶ DDA는 12월 각료회의 소집이 농업과 NAMA의 핵심쟁점인 분야별 자유화,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 면화보조금에 대한 미국, 중국, 인도 간의 타협 실패로 무산됨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임.

▶ 2008년 주요국의 FTA 특징을 보면 FTA 추진이 인접국에서 벗어나 타 대륙 국가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에너지 및 자원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원보유국들과의 FTA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의 RTA 추진 움직임은 당분간 둔화될 것임.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은 내년 초 오바마 신행정부가 경기부양책 등 선결해야 할 국내 경제현안이 많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임. 한편 한·EU FTA는 내년 초 타결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페루,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도 개시될 것임.

▶ 세계적인 경기침체 전망에 따라 2009년 세계투자도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FDI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전세계 FDI에 비하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임.

▶ 2008년 1~10월간 우리나라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2008년 10월까지 약 129.8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한편,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수출입 증가율이 11월에는 급격히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을 반영함.

▶ 2009년 수출은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對개도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크지 않을 것임. 수입은 유가하락과 국내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유가하락을 상쇄하는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예년의 수입증가율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무역수지는 균형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1. 세계무역 전망

가. 세계무역 전망

■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호주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2009년 세계무역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통화기금은 금년 11월 세계경제 전망에서 2009년 세계무역이 2008년 대비 약 2% 증가(무역량 기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도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세계무역이 2008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선진경제권의 2009년 수입은 2008년 대비 약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개도경제권 수입도 2008년 대비 5.2% 증가에 그쳐 전년도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표 1. 2009년 세계무역 전망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무역량 (상품 및 서비스)	9.4	7.2	4.6 (4.8)	2.1 (1.9)
수입				
선진경제권	7.5	4.5	1.8	△0.1
개도경제권	14.9	14.4	10.9	5.2
수출				
선진경제권	8.4	5.9	4.1	1.2
개도경제권	11.2	9.6	5.6	5.3

주: 1) ( ) 안은 OECD 전망치임.
2) 개도경제권에는 emerging markets이 포함됨.
자료: IMF(2008.11.6), *World Economic Outlook*.
OECD(2008), *Economic Outlook*, no 84, Issue 2.

나. 주요 지역별 무역 전망

■ 선진경제권 무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자원부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감소할 전망임.

- 미국은 국내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입이 모두 전년대비로 감소할 전망임. 다만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힘입어 무역수지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EU도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 수출이 전년대비 1.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유럽집행위 전망), 일본도 2009년 수출이 전년대비 약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일본은행 전망).

- 호주와 뉴질랜드는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수출증가(호주)와 함께 중·뉴질랜드 FTA의 본격 발효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가(뉴질랜드)가 기대되어 전년대비 수출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개도경제권 및 신흥개도국의 2009년 무역은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경제권의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대체로 감소할 전망임.

-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선진경제권을 포함한 세계적인 경기위축에 따라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세계은행은 2009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을 실질기준으로 3.5%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1998년 0.5%, 1999년 6.1%를 기록한 바 있음).

- 인도도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루피화 가치하락과 해외송금액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될 전망임. 러시아도 유가하락과 투자위축,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2009년 수출이 둔화될 전망임.

- 브라질 및 중남미도 미국 및 EU 등 선진경제권 경기침체에 따라 2009년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1차산품의 가격급락에 따라 경상수지도 악화될 전망임.

- ASEAN은 선진경제권의 경기침체에 따른 IT 및 전기·전자 등에 대한 수요 감소와 곡물가 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정정불안이 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임.

- 중동의 2009년 경상수지 흑자폭은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해 전년도의 30~40%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프리카지역도 전체 수출의 약 70%를 점하는 있는 미국과 유럽시장의 위축과 1차산품 가격 하락으로 수출성장세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가. WTO/DDA 협상 전망

■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 경제침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DDA 협상이 또다시 탄력을 받아 왔음.

- 지난 11월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워싱턴에 모여 '연내 DDA 타결'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DDA도 연내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의 세부원칙 도출을 목표로 라미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주요국간 집중적인 이견절충을 벌여 왔음.

1) 2008년 7월 각료회의 개최 이후 DDA 동향

■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 결렬 이후 라미 WTO 사무총장은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을 순방하면서 협상재개를 모색하며 주요국들의 DDA 협상 지속 의지를 확인하였음.

■ 이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7개국(G7)[1] 실무고위급 회의가 두 차례 개최되어 주요 쟁점에 대한 G7간 입장절충이 시도되었고,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DDA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 그 결과 라미 총장은 9월 26일 그린룸회의를 개최하면서 DDA 공식재개를 선언하였으며, 기존 'DDA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도 '연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도출'로 수준을 낮추었음.

- 이에 농업협상도 10월 1일 향후 협상일정을 발표하면서 비공식회의에 돌입했고, NAMA도 임기가 끝난 스티븐슨 의장의 후임으로 스위스의 DDA 대사인 바쉐샤(Wasescha)를 선임하면서 협상을 개시하였음.

■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NAMA 협상에서 주요국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자, 라미 총장은 11월 23일 일요일 긴급 그린룸회의를 소집하고 2008년 12월 중순 각료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요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였음.

- 라미 총장은 12월 각료회의를 통해 농업과 NAMA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이견절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핵심쟁점별로 그린룸회의를 매일 소집할 것임을 표명하였음.

2) 2008년 12월 각료회의 소집 무산

■ 2008년 11월 30일 그린룸회의에서 라미 사무총장은 12월 13~15일 각료회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수정초안 작성 및 배포를 독려하였음.

- 12월 각료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핵심의제 초안이 사전에 배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요국이 기존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절충점을 찾는 것이 선결과제임.

■ 12월 7일 농업과 NAMA 수정초안이 배포되었고, 이후 12월 8일 그린룸회의에서 각료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라미 총장은 이러한 예상과 달리 각료회의 소집 가능성을 12월 17~19일로 다시 미루면서 각료회의 개최 여부도 그때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의견절충 여부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료회의 개최 여부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음.

- 지난 7월에 이어 12월 각료회의가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난다면 DDA 타결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WTO 사무총장 재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라미 총장으로서도 각료회의 소집에 신중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그러나 불과 수일간의 협상으로 주요국 사이의 입장이 좁혀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이때부터 각료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DDA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하였음.

■ 12월 12일 주요국 대사급회의에서(HOD) 라미 사무총장은 그 동안의 집중적인 이견절충과정을 설명하면서 향후 48시간 이내 극적인 입장변화가 없는 각료회의 소집은 어려울 것임을 발표하였고, 이로써 사실상 연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도출은 불가능하게 되었음.

- 라미 총장은 비공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농업과 NAMA의 핵심쟁점인 분야별 자유화와 개도국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면화보조금 등 3가지 이슈에 대하여 주요국간 집중적인 입장절충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주요국간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음을 언급하였음.

- 라미 총장은 현 단계에서 연내에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각료회의를 소집할 경우 결렬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DDA 전체는 물론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어, WTO 사무총장으로서 다음 주에 각료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판단했음을 언급함(I do not think calling a Ministerial meeting next week would be wise).

1) 주요 7개국은 미국, EU, 인도, 브라질, 호주, 일본, 중국을 말함.

- 결국 라미 총장은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각료회의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12월 17일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TNC)에서 배포된 수정초안에 기초해 향후 협상추진방향에 대하여 회원국의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회의를 종료하였음.

- 이에 따라 사실상 연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도출은 불가능하게 되었음.

3) 2009년 DDA 전망

■ 금년 12월 각료회의 소집이 무산됨에 따라 DDA는 상당기간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물론 금년도 마지막 TNC 회의와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GC) 회의(12.18~19)에서 향후 DDA의 추진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이 제시되겠지만, 최소한 2009년 하반기는 되어야 DDA의 실질적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일단 협상의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미국과 EU의 국내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2009년 하반기 이전에 DDA의 논의가 급진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2009년 1월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협상대표의 교체가 예상되며, 또한 국내 경기부양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미국으로서는 2009년 상반기에 DDA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을 것임. EU도 2009년 상반기 집행위원회의 교체를 앞두고 있어 2009년 상반기에 DDA에 집중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됨.

- 다만 12월 7일 농업과 NAMA의 4차 의장수정안이 배포된 이후, 아직까지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에 2009년 1월 말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을 계기로 DDA 재개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국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며, 이후 2009년 상반기에는 4차 수정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 표명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협상이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도출은 2009년 하반기 논의를 거친 후 빠르면 2009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09년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09년 하반기에 DDA가 재개된다고 해도 농업과 NAMA에서 세부원칙을 도출하기까지는 또다시 주요국간 입장을 절충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함.

- 다만 4차 수정초안이 7월 각료회의 결렬 이후 주요국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의 산물이라는 점과 라미 사무총장의 주도로 약 2주간에 걸친 집중적인 이견조율 과정을 통해 주요국의 입장차이가 다시 좁혀졌음을 감안할 때,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합의도출은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타결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판단됨.

■ 결국 2009년 DDA 협상은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도출만으로도 큰 성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분야의 합의도출과 함께 일괄타결방식에 따른 DDA 전체 종료는 2010년 말 또는 2011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대외수출여건의 악화를 무역자유화 확대로 돌파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DDA 각료회의 소집이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향후 DDA의 조속한 재개 및 조기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은 물론 전략적 FTA 추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임.

- DDA의 조기타결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활로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통해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으로의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어 경기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당분간 DDA의 가시적인 진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요 교역상대국 및 자원보유국과의 전략적 FTA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와의 FTA 협상을 신속히 타결하고, 협상이 끝난 FTA를 조기에 발효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위기돌파에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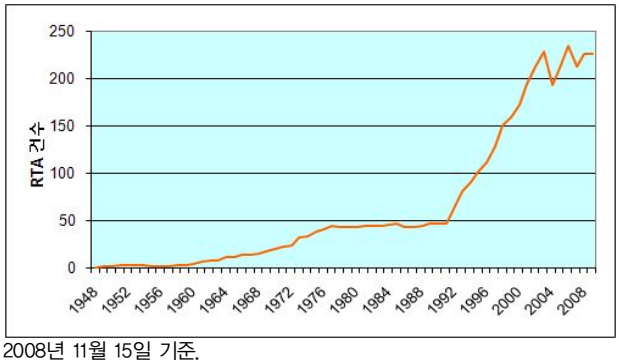
나. FTA 협상 전망

1) 세계 RTA 추진 현황

■ 지역무역협정은 1948년 GATT 창설 이후 1994년까지 총 91건에 불과했으나 WTO 출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08년 11월 15일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은 누계기준 총 227건에 달하고 있음(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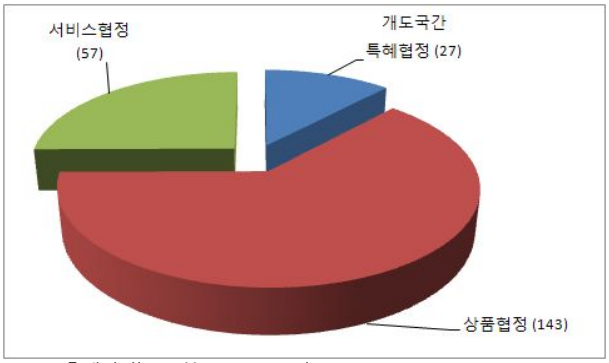
- 227건의 지역무역협정(RTA) 가운데 GATT 제24조에 근거한 상품무역협정은 1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GATS 제5조에 의거한 서비스무역협정이 57건,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이 27건임(그림 2 참조).

그림 1.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주: 2008년 11월 15일 기준.
자료: WTO 홈페이지.

그림 2. 유형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 2008년에 추가적으로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14건으로 GATT 제24조에 의거한 상품무역협정이 8건, GATS 제5조에 의거한 서비스 협정이 5건, 개도국 간 특혜무역협정(Enabling Clause)이 1건임(표 2 참조).

표 2. 2008년 WTO에 통보된 신규 RTA

관련 조항	협정	발효일	WTO 통보일	협정 유형
GATT 제24조	EC·CARIFORUM	08.11.1	08.10.16	FTA
	브루나이·일본	08.7.31	08.7.31	FTA
	EC·보스니아	08.7.1	08.7.11	FTA
	일본·인도네시아	08.7.1	08.6.27	FTA
	EFTA·SACU	08.5.1	08.10.29	FTA
	터키·알바니아	08.5.1	08.5.9	FTA
	칠레·파나마	08.3.7	08.4.17	FTA
	EC·몬테네그로	08.1.1	08.1.16	FTA
GATS 제5조	EC·CARIFORUM	08.11.1	08.10.16	EIA
	일본·브루나이	08.7.31	08.7.31	EIA
	일본·인도네시아	08.7.1	08.6.27	EIA
	칠레·파나마	08.3.7	08.4.17	EIA
	파키스탄·말레이시아	08.1.1	08.2.19	EIA
Enabling Clause	파키스탄·말레이시아	08.1.1	08.2.19	FTA

주: 1) 개도국간 특혜협정(Enabling Clause)은 개도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협정으로, GATT 제24조 또는 GATS 제5조 조건, 즉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및 서비스의 자유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됨.
2) FTA: Free Trade Agreement, 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 2008년 11월 현재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은 〈표 3〉과 같으며, 주요 특징을 보면 FTA 추진이 인접국에서 벗어나 타 대륙국가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에너지 및 자원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원보유국들과의 FTA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2008.11 현재)

국가	기 체결 FTA	협상 중인 FTA	검토 중인 FTA
미국	NAFTA, 모로코, 한국, 호주, 미국-CAFTA-DR, 바레인, 싱가포르,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FTAA, SACU, 말레이시아, UAE, 태국, 에콰도르	뉴질랜드, 대만, 이집트, 쿠웨이트, 파키스탄
캐나다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CACM, EFTA, 한국, 메르코소, 도미니크공화국	안데안공동체, CARICOM, EU, 일본, 태국, 페루
메르코소	CAN(안데안국가연합), 인도, 칠레	EU, GCC	EFTA, 미국, SACU, 한국
EU	EFTA, 남아공, 레바논, 칠레, 마케도니아, 멕시코, 터키, 모로코, 시리아, 알제리, 안도라(CU),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튀니지, 크로아티아	ACP, GCC, 메르코소, 이란, 한국	ASEAN, 싱가포르,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	Trans Pacific SEP, 싱가포르, 태국, 호주	ASEAN, 말레이시아, 뉴질랜드-호주-아세안	멕시코, 한국
중국	ASEAN,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홍콩	GCC,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아이슬란드	인도, 한국
일본	ASEAN, 말레이시아, 칠레, 멕시코, 브루나이,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니	GCC, 베트남, 인도, 스위스, 한국, 호주	대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태국, 파푸아뉴기니	UAE, 호주-뉴질랜드-아세안,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GCC, 멕시코, 칠레, 한국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fta.kita.net)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

■ 한편 2008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은 〈표 4〉와 같음.

-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서 2008년 9월에는 인도와의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EU, 멕시코 및 GCC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인도와의 CEPA는 지난 9월 말 실질적인 타결을 끝냈으나, 인도 측에서 16개 품목관련 원산지규정에서 이의를 제기해 옴에 따라 가서명 계획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호주 및 뉴질랜드와는 각각 예비협의를 진행 중이며, 중국과의 산·관·학 공동연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음.

표 4. 한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

	추진 현황
기 타결된 FTA	한·칠레 FTA(04.4.1 발효)
	한·싱가포르 FTA(06.3.2 발효)
	한·EFTA FTA(06.9.1 발효)
	한·ASEAN FTA(상품무역협정 07.6.1 발효, 서비스무역협정 07.11.21서명, 투자협정 협상 진행 중)
	한·미 FTA(07.4.2 타결)
추진 중인 FTA	한·인도 CEPA(08.9 실질적 타결)
	한·캐나다 FTA (05.7 협상 개시)
	한·EU FTA (07.5 협상 개시)
	한·멕시코 SECA (06.2 협상개시, 06.6 협상잠정중단, 07.12 협상 재개)
	한·일 FTA(03.12 협상 개시, 04.11 이후 협상 중단)
	한·GCC FTA(08.7 협상 개시)
기타여건 조성 중인 FTA	한·중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MERCOSUR FTA
	한·페루 FTA
	한·터키 FTA
	한·러시아 FTA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2) 세계 RTA 추진 전망

■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당분간 세계 각국의 RTA 추진 움직임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11월 6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일본 및 EU 지역 모두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며, 세계경제 또한 2008년 3.7%에서 2009년에는 2.2%로 성장률이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이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보호나 수출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실업 등 고용환경 악화에 직면한 노동자들도 보호주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가 FTA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데 정치·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지난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향후 1년 동안 새로운 투자·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고, 무역자유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위기 타결 등 보다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RTA 추진에 각국 정부가 역량을 집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FTA 추진과 관련하여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한·미 FTA 비준도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비준 국회동의안 제출을 마쳤으나 국회는 적절한 상정 시점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도 내년 초 오바마 신정부 초기에 경기부양책 등 선결해야 할 국내 경제현안이 많기 때문에, 동 FTA의 의회 상정 및 비준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지난 미국 대선과 맞물려 진행된 의회 선거에서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상하원에 대거 포진하게 되어,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은 다소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EU FTA는 2009년 1월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상종결 의지를 확인할 것이며, 2월 말에 있을 8차 회담을 종점으로 협상이 완결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 여부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임.

- 2009년 초,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 측에 FTA 협상 개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APEC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페루와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것이며,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도 민간단계의 연구를 마치고, 2009년 중에는 개시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본과의 FTA 협상 재개는 최근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협상재개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2009년 협상 재개는 여의치 않을 전망임.

3. 한국의 투자 전망

가. 최근 투자 동향

1) 외국인직접투자

■ 2008년 3/4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2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제침체 상황에서 비교적 높은 유치실적을 기록함.

- 2008년 3/4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전기대비 56.9% 증가했으며, 2008년 1~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7.4%로 높은 수준임.

■ 국가별로는 전통적으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미국 및 네덜란드의 투자가 주춤함.

-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해 왔음. 2001년부터 2008년 3/4분기까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및 영국의 투자가 한국의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4%로 매우 높음.

- 그러나 2008년 3/4분기에는 싱가포르(7.2억 달러)의 투자가 네덜란드(4.9억 달러), 영국(2.7억 달러), 미국(2.5억 달러), 일본(2.4억 달러)보다 많았음(싱가포르의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899.6% 증가).

- 반면 미국과 네덜란드의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56.9%, 31.1% 감소하여, 영국(480.9%), 일본(25.5%)과 다른 양상을 보임.

■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에,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였음.

- 2001년부터 2008년 3/4분기까지의 투자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93억 달러)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193억 달러)에서 투자를 많이 유치함. 전기·전자는 반도체(66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금융·보험은 금융업(170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많았음.

- 그러나 2008년 3/4분기 중에는 이외 화공, 도·소매(유통), 운수창고(물류)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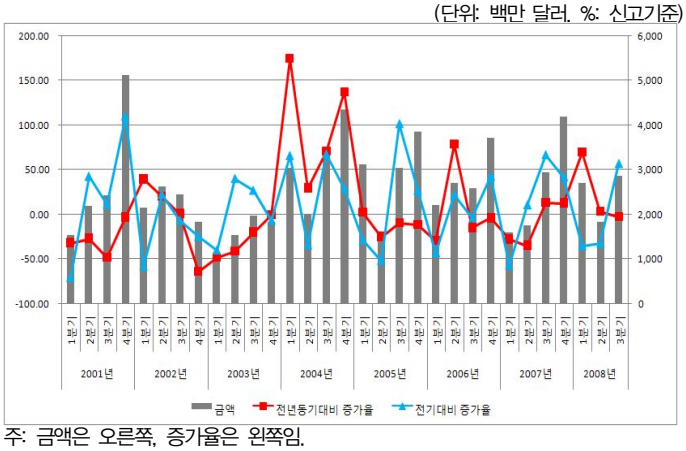
■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의 산업별 투자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국가별로 주요 투자산업이 다르나,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이루어짐.

- 2008년 3/4분기 투자 중 제조업의 경우 미국은 화공, 일본은 비금속광물, 영국과 네덜란드는 전기·전자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함. 서비스업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은 금융·보험업에, 네덜란드는 도·소매업부문(유통)에 많은 투자를 함.

- 2001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제조업의 경우 미국, 일본, 네덜란드는 전기·전자부문에, 영국은 화공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2008년 3/4분기의 투자에서는 이러한 양상에 변화가 생긴 것이 주목할 만함.

그림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신고기준)



주: 금액은 오른쪽, 증가율은 왼쪽임.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http://www.mke.go.kr/index2.html).

2) 해외직접투자

■ 2008년 3/4분기 해외직접투자는 5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4.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부터 연속하여 3년간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해 옴. 또한 전기대비로도 3/4분기중 16.5% 증가하여 2008년 들어 처음으로 양(+)의 증가율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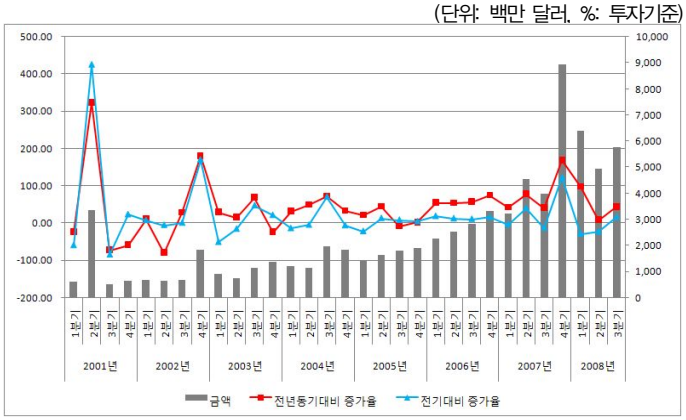
- 이에 따라 2008년 3/4분기 해외직접투자 역시 외국인직접투자와 동일하게 양호한 실적을 보임.

■ 국가별로는 중국 및 미국으로의 투자가 활발함.

- 2001년부터 2008년 3/4분기까지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752억 달러) 가운데 중국(208억 달러)과 미국(148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47.3%에 달함. 2008년 3/4분기의 해외직접투자도 중국 및 미국으로의 투자가 많았음.

그림 4.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투자기준)



주: 금액은 오른쪽, 증가율은 왼쪽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http://www.koreaexim.go.kr/kr/oeis/m03/s01.jsp)

○ 다만 최근 들어 미국으로의 투자(38억 달러)가 중국으로의 투자(32억 달러)보다 많은 것이 이전과 다른 추세임.

■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전자부품에, 서비스업은 도·소매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이외 투자가 활발한 산업은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산업이며, 서비스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전문서비스업임.

- 특히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2008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광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2001년부터 2008년 3/4분기까지 광업에 대한 총투자액은 79억 달러인데, 이 중 2006년에 14억 달러, 2007년에 20억 달러, 2008년 3/4분기까지 31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 최근 들어 투자가 활발해짐.

■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산업별 투자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는 양국 모두 전자부품에 대한 투자가 많았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에는 금융·보험업에, 미국에는 도·소매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단 2008년 3/4분기까지 미국 제조업 투자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나. 2009년 투자 전망

■ 2009년 전세계 투자는 세계 경제침체 전망에 따라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FDI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EIU(2007)는 2009년 전세계 투자가 전년대비 약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ECD(2008)도 OECD회원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는 2007년 1.37조 달러에서 2008년 1.04조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또한 UNCTAD(2008)에 의하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향후 3년간(2008~2010년) 기업의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이 39%로 높게 나타났음.

■ 다만 UNCTAD(2008)를 비롯한 세계 주요기구는 한국의 경우 서비스를 중심으로 FDI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건에 대한 최근 판결이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의사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2009년 상반기 한국의 FDI 실적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음. 특히 2009년 상반기 금융공기업 매각이 시행되는 등 국내 개혁조치가 가시화되면 FDI 유입이 증가할 수도 있음.

■ 반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및 전 세계의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이 투자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 2009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4. 한국의 무역수지 전망

가. 2008년(1~11월) 무역 현황

■ 2008년 1~10월간 우리나라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2008년 10월까지 약 129.8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한편,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수출입증가율이 11월에는 급격히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을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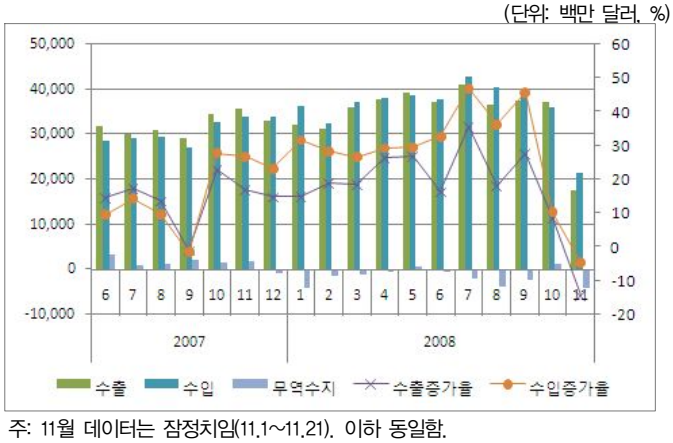
- 2008년 1~10월간 수출은 3,663억 4,6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0%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7년의 동 기간 증가율 13.7%를 상회하는 것임. 그러나 2008년 1~10월간 수입이 총 3,799억 8,500만 달러로 31.5%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함(2007년 동 기간 수입증가율은 13.3%).

- 2008년 11월(11월 21일까지)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4% 감소, 수입은 4.8%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9.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유가하락분이 반영되어 하반기에는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던 당초 예상치를 크게 하회함.

○ 2008년 11월 품목별 수출은 전월과 비교하여 자동차(11월 2.0% 증가, 10월 13.3% 감소)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두 자릿수 범위로 감소했으며, 지역별 수출은 대양주(11월 39.6% 증가, 10월 38.3% 증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함.

그림 5. 월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임(11.1~11.21). 이하 동일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08년 1~11월간 우리나라의 국별 수출은 對중국, ASEAN, 중남미 등 개도국에 대해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 EU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 다소 부진했음. 한편, 對일본 수출은 예년에 비해 호조세를 띰.

- 對미국, EU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이 국가들의 경기 악화에 기인함.

- 對선진국 수출보다는 對개도국 수출이 두드러지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특징임.

표 5. 주요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1~11. 21
전체 수출	284,419 (12.0)	325,465 (14.4)	371,489 (14.1)	383,896 (18.8)
미국	41,343 (-3.5)	43,184 (4.5)	45,766 (6.0)	41,548 (3.6)
EU	43,659 (15.4)	49,240 (12.8)	55,982 (15.6)	53,647 (9.8)
일본	24,027 (10.7)	26,534 (10.4)	26,370 (-0.6)	25,600 (11.6)
중국	61,915 (24.4)	69,459 (12.2)	81,985 (18.0)	85,073 (18.6)
아세안	27,432 (14.2)	32,006 (16.9)	37,495 (20.8)	44,853 (33.4)
중남미	14,987 (29.6)	20,591 (37.4)	25,781 (25.2)	29,146 (32.9)
CIS	5,461 (51.4)	7,241 (32.6)	11,313 (56.1)	12,252 (35.1)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008년 CIS 통계는 1~10월간의 합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로는 2008년 1~11월간 석유제품(76.2% 증가), 선박류(54.7% 증가), 무선통신기기(23.1% 증가) 등이 전체 수출을 주도함.

- 반면 전통적인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2007년부터 수출가 하락으로 수출부진을 면치 못하여, 2008년 1~11월간 수출이 11.8%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수출도 2.7% 감소함.

- 석유제품은 유가 상승분이 수출가격에 반영되어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증가율이 감소함.

- 석유제품의 수출가 상승은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증가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옴.

표 6.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1~11.21
전체 수출	284,419 (12.0)	325,465 (14.4)	371,489 (14.1)	383,896 (18.8)
반도체	29,986 (13.1)	37,360 (24.6)	39,045 (4.5)	30,584 (-11.8)
자동차	29,506 (11.0)	32,922 (11.6)	37,284 (13.2)	31,099 (-2.7)
무선통신기기	27,495 (4.9)	27,018 (-1.7)	30,458 (12.7)	33,177 (23.1)
컴퓨터	14,117 (-17.6)	12,576 (-10.9)	13,808 (9.8)	9,994 (-17.5)
선박류	17,727 (13.2)	22,123 (24.8)	27,777 (25.6)	35,844 (54.7)
석유제품	15,366 (50.6)	20,404 (32.8)	23,966 (17.5)	35,594 (76.2)
합성수지	10,304 (22.3)	11,177 (8.5)	13,000 (16.3)	13,855 (21.7)
철강판	10,215 (19.8)	10,997 (7.7)	12,375 (12.5)	14,576 (34.2)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가별 수입을 살펴보면, 유가 상승으로 인해 2008년 1~11월간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증가율은 28.8%를 기록함.

- 미국, EU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2007년에 비해 다소 하락함. 반면, 중국, ASEAN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우리나라 수출입의 對개도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띰.

표 7. 주요국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1~11.21
전체 수입	261,238 (16.4)	309,383 (18.4)	356,846 (15.3)	401,505 (28.8)
미국	30,586 (6.3)	33,654 (10.0)	37,219 (10.6)	35,044 (5.7)
EU	27,296 (12.9)	30,168 (10.5)	36,824 (22.5)	36,465 (13.0)
일본	48,403 (4.9)	51,926 (7.3)	56,250 (8.3)	55,931 (13.0)
중국	38,648 (30.6)	48,557 (25.6)	63,028 (29.8)	71,112 (28.8)
ASEAN	26,064 (16.4)	29,743 (14.1)	33,110 (11.3)	38,052 (30.1)
중동	47,395 (40.8)	62,531 (31.9)	67,541 (8.0)	94,943 (64.8)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요 품목별로는, 2008년 1~11월간 유가 상승으로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이 전체 수입을 주도했으며, 석유 에너지의 대체

재로서 석탄 수입이 급증함. 또한 국내 조선업의 수요 증가와 철강재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철강판 수입이 급증함.

나. 2009년 무역 전망

■ 2009년은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2008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둔화는 중간재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수입증가율도 2008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무역규모의 증가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 침체가 전반적인 수출 여건에 악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 조선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가능성이 예상됨.

- 무선통신기기는 국내산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또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IT산업의 전폭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미국시장 진출 확대에 기회요인이 있음.

- 조선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건조량이 사상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8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수출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반도체 수출은 최근 국제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로 고전해 왔으며, 2009년에도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국내 업체의 원가경쟁력이 제고되면 2008년에 비해 다소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2008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에 힘입어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나, 유가하락, 중동의 신·증설 설비가 2008년 4/4분기에 가동되면서 공급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석유제품 수출증가세는 2008년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 시장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에도 수출에 고전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중저가자동차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신흥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음.

■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미국, EU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둔화되는 반면, 對개도국 수출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신흥 개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개도국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2009년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을 크게 좌우할 것임.

  ○ 2008년 1~11월간 주요 개도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중국 18.6%, ASEAN 33.4%, 중남미 32.9%, CIS 35.1 %(1~10월)인데 반해 동 기간 중 미국(3.6%), EU(9.8%)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2007년에 비해 둔화되었음.

-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로 2009년 對선진국 수출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경우 선진국에 대한 수출부진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에도 선진국으로의 우회수출 감소와 중국 등 개도국 내수경기 위축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2009년 무역수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의 하락세와 원화환율의 상승, 그리고 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흑자요인이 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균형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09년에는 수출과 수입 양면에서 모두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유가 하락, 원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무역수지 개선의 원인이 수출 활성화라는 긍정적 요인이 아니라 내수 침체에 따른 수입 수요의 감소,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에너지, 원자재 가격하락을 동반하는 디플레이션 현상, 한국경제에 대한 상대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환율상승 등 수입에 부정적인 요소들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무역수지 개선이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는 정치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결국 무역자유화의 후퇴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비록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발표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free and fair trade)" 추구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국의 경제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경우 각국의 정치인들이 자국산업 우선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쟁적인 무역장벽 쌓기로 연결될 수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며, 그간 누적되어 온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무역수지의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근까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중동 산유국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2)]

■ 종합하면, 2009년 수출은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對개도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편 유가하락과 국내수요 감소로 수입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중 평균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유가하락을 상쇄하는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예년의 수입증가율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상품무역수지는 균형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KIEP

연구진: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장
(jksuh@kiep.go.kr, Tel: 3460-1156)
정여천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ycjeong@kiep.go.kr, Tel: 3460-1062)
정 철 무역투자정책실 WTO 팀장
(cchung@kiep.go.kr, Tel: 3460-1184)
송백훈 무역투자정책실 FTA 팀장
(bsong@kiep.go.kr, Tel: 3460-1208)
현혜정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부연구위원
(hjhyun@kiep.go.kr, Tel: 3460-1050)
김정곤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jgkim@kiep.go.kr, Tel: 3460-1093)
김혁황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hhkim@kiep.go.kr, Tel: 3460-1135)
이경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khyi@kiep.go.kr, Tel: 3460-1083)

2)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8-2009: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Economic Outlook," 2008. 11. 19. 참조.